



일본의 새소식

在大韓民國日本國大使館公報文化院

☎ 03131 서울특별시 중로구 율곡로 64 Tel. 02. 765. 3011~3

08

2017 | Vol. 5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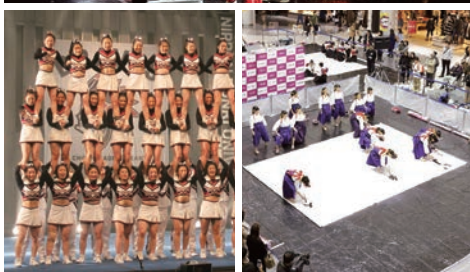
도톤보리의 축제 (道頓堀の祭り) Photo : Kim YoungJun

한일축제한마당 in Seoul 2017

9월 24일 코엑스 D홀 개최

한국과 일본 양국간 최대 규모의 문화교류 축제인 '한일축제한마당 in Seoul 2017' 이 오는 9월 24일(일) 코엑스 D홀에서 개최된다.

일한국교정상화 40주년을 기념하는 '일한 우정의 해 2005'의 주요 사업으로 시작된 '한일축제한마당'은 양국 최대 규모의 풀뿌리 문화교류 행사로 성장해 왔으며, 13회째를 맞이하는 올해는 '함께 나아가자 한마음으로(共に歩もう 心ひとつに)'를 테마로 다양한 무대공연과 부스행사가 진행된다. 양국 문화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다. 자세한 행사내용은 '한일축제한마당 2017 in Seoul' 공식 홈페이지와 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 시 9월 24일(일) 10:00~19:30

장 소 코엑스 D홀

테 마 함께 나아가자 한마음으로

슬로건 즐거운 축제, 즐거운 만남, 즐기는 우리

주 최 한일축제한마당 2017 in Seoul 실행위원회

주 관 한일축제한마당 2017 in Seoul 운영위원회

문의 한국측 운영사무국(셋강나루) 02-702-7775



이번 한일축제한마당에서는 앞으로 다가올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와 2020년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개최를 앞두고, 올림픽 응원 메시지를 담은 일본문리대학(日本文理大学) 'BRAVES'의 치어리딩 공연과 돗토리 히가시고등학교(鳥取東高等学校)의 서예 퍼포먼스가 공식행사로 개최된다. 또 미야기현 센다이시(宮城県仙台市)의 부흥지원 아이돌 '미치노쿠 센다이 ORI☆히메타이(みちのく 仙台ORI☆姫隊)'를 비롯해서, J-POP 아티스트 'Kradness'와 K-POP 여성 아이돌 그룹 'TAHITI'의 스페셜 공연이 진행된다. 또 퓨전국악그룹인 '비단'과 난타 퍼포먼스 '청명'의 공연을 비롯해서, 사물놀이 한울림예술단(김덕수패 사물놀이)의 공연이 피날레 공연으로 이어진다.

한편, 한일광장의 'Festival Wall'에서는 방문객들로부터 한일축제한마당은 물론 올림픽과 문화교류 등에 대한 다양한 응원 메시지를 받아, 이를 소개하는 코너를 마련하는 등 '함께 나아가자 한마음으로'라는 테마에 걸맞는 다채로운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나아가 양국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를 통해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 등 오감을 만족시키는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하여, 축제의 매력은 물론 재미와 즐거움까지 선사한다.

특히, 지자체 부스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강원도와 돗토리현, 전라남도과 고치현의 공동부스가 설치될 예정이며,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한국과 일본의 전통놀이문화 체험과 일본축제놀이 등을 즐길 수 있다. 또 푸드 부스에서는 다양한 식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공식 홈페이지 <http://omatsuri.kr>

블로그 blog.naver.com/kj_omatsuri

인스타그램 instagram.com/kj_omatsuri

페이스북 facebook.com/kjfestivalseoul

각각 최초의 국립공원을 보유한 구레군과 운젠시

운젠의 여름

운젠시에 대해

운젠시(雲仙市)는 나가사키현(長崎県) 남동부에 있는 시마바라반도(島原半島)의 북서부, 운젠 후젠다케(雲仙普賢岳) 산을 감싸듯이 위치하고 있으며, 북쪽으로 아리아케해(有明海, 구슈 북서부 바다), 서쪽으로 다치바나만(橋灣) 2개의 바다에 면해 있다. 또 시마바라반도의 중앙부에는 화산 활동으로 생긴, 일본에서 가장 최근에 형성된 헤이세이 신산(平成新山)이 있고, 이 산을 가장 가까이서 조망할 수 있는 새 등산로는 살아 있는 지구를 체험할

수 있으며, 강인하고 아름다운 식물을 만나볼 수 있는 매력적인 트레킹 코스가 되었다.

운젠시에 있는 ‘운젠’은, 일본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천연기념물을 비롯해 대자연이 빚어낸 사계절 경치를 즐길 수 있다. 봄에는 산을 선명한 분홍빛으로 물들이는 진달래가 만발하고, 여름에는 평균기온 약 22℃로 시원하며, 가을에는 울긋불긋 물든 단풍을 즐길 수 있고, 겨울에는 공기 중의 수분이 얼어붙어 ‘눈꽃(霧氷, 무빙)’이 되는 환상적인 공간을 체험할 수 있다.

또 운젠시에는 산 속의 운젠 온천(雲仙温泉)과 바닷가의 오바마 온천(小浜温泉)이라는 수질이 다른 2종류의 온천이 있는데, 운젠 온천은 유황 성분으로 인해 피부가 매끈해 지고, 오바마 온천은 나트륨 성분으로 인해 목욕 후 한기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한다. 운젠 온천을 대표하는 관광지 ‘운젠 지옥(雲仙地獄)’은 재작년 리뉴얼로 지열 체험시설 등이 새로 생겼다. 또 석양이 매우 아름답다고 알려진 오바마 온천에는 일본에서 가장 긴 족욕탕 ‘HOT FOOT 105’가 있어 많은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다.

이 밖에 일본의 국가중요문화재로 지정된 나베시마 저택



오바마 온천



운젠시 중학생 자매도시 교류 사업

(鍋島邸)을 중심으로 구니미정(国見町) 고지로쿠지(神代小路) 지구는 국가의 ‘중요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에도시대로 되돌아간 듯한 아름다운 거리 풍경이 펼쳐진다.

구레군과의 자매도시결연까지

운젠시와 자매도시인 구레군은 북부와 동북부가 지리산에 면해 있고, 남부는 평야가 펼쳐지며, 지역의 중앙을 섬진강이 흐르고 있다. 서울, 부산, 광주 등 주요 도시로의 접근성이 좋고, 관광특별구역으로 관광과 휴양의 명소이기

도 하다. 운젠시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제1호로 지정된 국립공원이 있어, 구레군과 운젠시는 2006년부터 검토와 협의를 거듭한 결과, 공통점이 많다는 점에서 자매도시 결연에 합의하게 되었고, 2007년 5월 18일 운젠시에서 자매결연 조인식을 갖고 자매도시로서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후 청소년 교류 및 민간 교류 등을 꾸준히 실시해 왔으며, 올 5월에는 운젠 시장, 운젠시 의회 의장을 비롯한 운젠시 방문단이 구레군을 방문해 자매결연 체결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지난 10년간의 교류를 소중히 여기며 자매도시 교류의 외연이 더욱 넓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자매결연 체결 10주년 기념식



운젠시 국제교류단체 파견 사업



운젠 온천

각 방면에서 다양한 교류 추진

지금까지 운젠시와 구레군의 교류는, 상호 기념식 참석 등 공적 기관의 인적 교류와 문화 교류 외에 운젠 시내를 중심으로 활동 중인 시민 단체를 구레군에 파견해 현지 시민 단체 등과 교류를 도모하는 시민 단체 교류 및 중고생 청소년 교류, 스포츠 교류, 문화 교류 등 상호 교류 등을 실시해 왔다.

2011년부터 시작한 운젠시와 구레군의 중학생 교류 사업은 2017년 6회를 맞는데, 학생들이 실제로 자매도시를 상호 방문하며 교류를 거듭하고 있다. 처음에는 언어가 통하지 않아 불편해 하던 학생들이, 며칠 동안 숙식을 함께 하며 몸짓 손짓으로 소통하면서 점차 스스럼이 없어지고, 교류가 끝날 때는 이별을 아쉬워하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미래로 이어지는 교류를 지속하고자

지금까지 거듭해온 교류 중에서도, 특히 자매도시 중학생 교류 사업의 학생 교류는 미래로도 이어질 것이며, 앞으로도 상호 교류의 외연을 넓혀 양 도시의 관계를 지금 이상으로 강하고 확실하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

고 있다.

중학생 시절에 실제로 해외를 방문해 그곳의 문화와 풍습, 전통을 직접 경험하는 일은, 국제사회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실감하고, 소통 능력을 습득함으로써 양국의 우호 친선 도모에 기여하므로 자매도시 교류는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또, 민간단체의 교류 사업도, 시민 개개인이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인연을 맺을 기회가 되고 있어, 사람과의 인연과 교류 경험이 바탕이 되어 지역사회의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교류를 반복하고 서로를 충분히 이해해야만 비로소 진정한 교류가 가능하므로, 이를 위해서는 차분히 시간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국제 교류는 사람과 사람과의 교류가 기본이고, 시민 개개인이 지역의 국제화 담당자가 된다. 외국인 시민과 관광객을 반갑게 맞아들일 수 있는 국제화에 어울리는 도시 만들기를 추진해 가기 위해서도, 한층 돈독한 교류를 이어가고자 한다.

운젠시 홈페이지 <http://www.city.unzen.nagasaki.jp/>

번역은 문화와 사람의 감정까지 전하는 과정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일본영화부터 최신 애니메이션까지 170여 편의 자막 작업을 진행한 번역가 강민하 씨. 번역이란 ‘문화와 사람의 감정까지 전하는 과정으로 무언가를 전할 때는 자신의 말에 책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그 신념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일본과 일본문화를 처음 접한 계기는.

대학교 2학년 때 연세대학교 어학당에서 1년간 일본어를 공부한 후, 국비유학으로 일본에 갔습니다. 대학 시절, 저는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영화 관련 잡지나 신문 기자가 되고 싶었는데, 마침 영화 주간지 ‘시네 21’의 도쿄 특파원으로 활동하게 되면서 꿈이던 영화 관련 기사를 잡지에 게재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으로 유학을 가지 않았다면, 지금 같은 일을 계속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번역가로서, 특히 일본영화의 자막 번역가로서 활동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시네 21’ 도쿄특파원으로 일하던 당시, 일본영화는 한국에서 정식으로 상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영화 한 편 한 편을 취재하지 않으면 기사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일본영화가 있는지 공부하면서, 소규모 영화제를 찾아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영화계에서 통역 일을 하게 되었고, 감독님과 배우 등 영화 관계자들과 접할 기회도 많아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에 대



日本や日本文化に初めて出会ったきっかけは.

大学2年生の時、延世大学語学堂で1年間日本語を勉強した後、国費留学で日本に行きました。大学時代の私は、映画が大好きで映画関連の雑誌や新聞の記者になりたいと思っていましたが、ちょうど映画週刊誌「シネ21」の東京特派員として活動することになり、夢だった映画関連の記事を雑誌に掲載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日本に留学を行けていなかったら、今のようない仕事を続けられなかったと思います。

翻訳家として、特に日本映画の字幕翻訳家として活動するようになったきっかけは何でしょうか.

「シネ21」の東京特派員として働いていた当時、日本映画は韓国で正式に上映できなかったため、映画一つ一つを取材しないと記事が書けませんでした。どのような日本映画があるのかを勉強しつつ、小さい映画祭を訪れては取材し、記事を書きました。自然に映画界で通訳の仕事をするようになり、監督や俳優など、映画関係者とも接する機会が増えました。その中で、仕事に対して良い評価を受け、同じ監督を何度も通訳することになり、さらにはその方の作品を翻訳することに繋がり、

한 좋은 평가를 얻으며, 같은 감독을 여러 번 통역하게 되었고, 나아가 그 분의 작품 번역으로 이어지면서 자막 번역가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최근 번역한 작품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작품은.

‘너의 이름은.’은 지금까지 번역한 작품 중에서도, 꽤나 어려움을 느낀 작품이었습니다. 일본인도 익숙하지 않은 일본의 고유문화와 관련된 용어가 많은데다, 일본에서 흥행한 작품이라, 한국에서도 흥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압박감이 있었습니다. 또 자꾸 눈물이 나는 극적인 작품이 아니라, 누구나 갖고 있는 그리움이나 누군가를 잃었을 때의 감정 등이 묘사된, 강한 감동을 주는 작품이었기 때문에, 자막이 이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관객이 그 감정을 제대로 느낄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약 350만 명이 보는 등, 반향이 컸고 자막까지 화제가 된 작품이라, 아마 20년 이상이 지나도 가장 기억에 남을 듯합니다.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흥행한 작품 ‘너의 이름은.’의 자막 번역을 담당하게 된 계기는.

한국 배급사를 정하기 전 단계의 미팅에 통역으로 참여



字幕翻訳家の道を歩むようになりました。

最近翻訳した作品の中で, 最も印象に残っている作品は.

「君の名は。」は, これまで翻訳してきた作品の中でも, かなり難しさを感じた作品でした. 日本人も聞き慣れない日本固有の文化に関わる用語が多かった上, 日本で大ヒットした作品であったため, 韓国でもヒット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プレッシャーもありました. また, 泣けるような劇的な作品ではなく, 誰もが持っている懐かしさや誰かを失った時の感情などが描かれている, 心にぐっとくるような作品なので, 字幕がそれを妨げたりせず, 観客がその感情を上手く感じ取れるよう, 特に心がけました. 約350万人が観るなど, 反響が大きく, 字幕まで話題になった作品はなかったので, おそらく20年以上経っても最も記憶に残ると思います.

日韓両国で大ヒットした作品「君の名は。」の字幕翻訳を担当することになったきっかけは.

韓国の配給会社が決まる前段階の打ち合わせに通訳として参加したことがありましたが, 配給が決まると関係者の方が「映画字幕はこの前のカンさんが担当しますか」と聞かれたそうです. これまで170本以上の劇場版の日本映画やアニメーションを翻訳しましたが, 「君の名は。」はぜひ翻訳してみたいと思っていた作品だったので, 非常に光栄に思っています.

カン・ミンハさんの翻訳が日本を代表する監督から認められる理由, そして一般の観客の共感を得ている秘訣は何だと思われますか.

日本での留学を終えて韓国に帰ってきた後, 釜山国際映画祭に呼んで頂き, 岩井俊二監督, 塚本晋也監督, 阪本順治監督といった有名監督の通訳をする機会を得ました. 通訳において最も重要なのは, 「何を通訳するか」を知っていることだと思います. そのため, 通訳する監督や俳優のプロフィールを覚え, 制作または出演した映画は必ず見ることを心がけました. その努力は今も続いています. また, 通訳したことのない監督や俳優, またはよく分からない分野に関する通訳を依頼された場合, 十分な時間をかけて勉強できる時のみ依頼を引き受けるようにしています. これまで翻訳してきた経験の数より

한 적이 있는데, 배급이 결정되자, 일본측 관계자 분이 ‘영화 자막은 강민하 씨가 맡나요’라고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170편 이상의 극장판 일본영화나 애니메이션 자막을 번역했지만 ‘너의 이름은.’은 꼭 번역해보고 싶었던 작품이라,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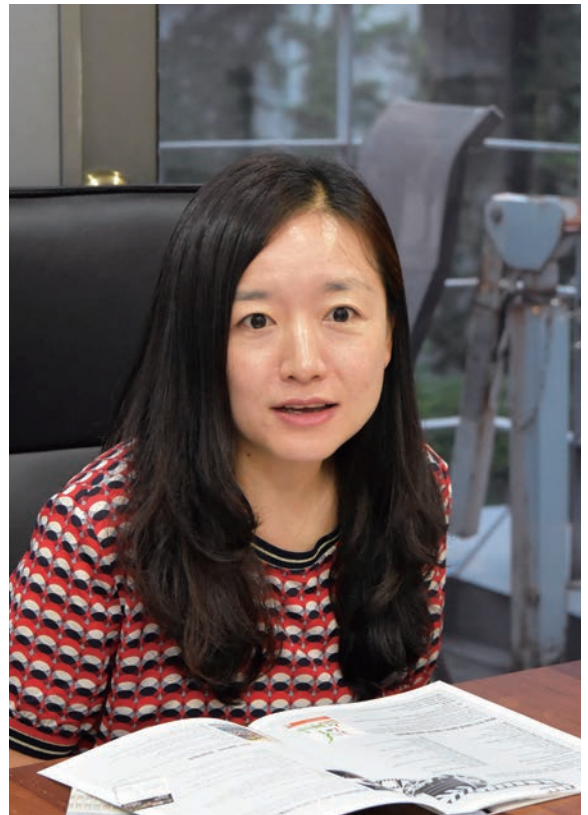
강민하 씨의 번역이 일본을 대표하는 감독에게 인정받는 이유, 그리고 일반 관객의 공감을 얻는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일본에서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온 후, 부산국제영화제의 요청으로 이와이 슌지 감독, 쓰카모토 신야 감독, 사카모토 준지 감독 같은 유명 감독의 통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통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을 통역할지’를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역하는 감독과 배우의 프로필을 외우고, 제작 또는 출연한 영화는 반드시 보려 합니다. 그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통역한 적이 없는 감독이나 배우, 또는 잘 모르는 분야의 통역을 의뢰 받았을 경우, 충분히 시간을 들여 공부할 수 있을 때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번역한 경험의 수보다도, 번역하는 내용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힘이 되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본영화와 애니메이션을 번역할 때 중점을 두는 부분과 힘들었던 점은.

번역할 때, 관객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영화를 만든 이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일본어를 모르는 더 많은 일반인들도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자막을 만들려 합니다. 그래서 한국어 자막을 읽어도 이해하기 쉬우면서 깔끔한 문장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단순히 원어를 다른 언어의 말로 바꾸는 작업에 그치지 않고, 말에 담긴 상황까지 고려해서 번역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화 자막은 약 1.5초 만에 문자가 나타났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이 번역의 즐거움이자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口噛み酒’라는 말이 작품에 처음 나왔을 때는 한국어로 ‘구치카미자케’라고 썼지만, 그 다음에 나왔을 때는 관객이 이 단



も、翻訳する内容の方が極めて大事であるためです。これが力になって、良い評価を頂けるようになった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

日本の映画やアニメを翻訳する際に重点を置く部分と苦しかった点は。

翻訳する時、観客を第一に考えます。基本的には、映画を作った人々の努力が無駄にならないよう、日本語が分からない大多数の一般の方々も映画を楽しめるような字幕を作ろうと心がけています。そのため、韓国語の字幕を読んでも理解しやすく、綺麗な文章として成立するようにしています。

また、単に元の言語の言葉を違う言語の言葉に変える作業にとどまらず、言葉が発せられる状況まで踏まえて訳さ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います。映画字幕は、約1.5秒で文字が現れては消えてしまうため、それが翻訳の楽しさでもあり、難しさでもあります。例えば、「口噛み酒」という言葉が作品で最初に出てきた時は、韓国語で「クチカミザケ」と字幕を入れましたが、次

어를 기억하지 못해서 영화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설명을 붙여서 ‘여고생 입 술’이라는 자막을 넣었습니다. 또, 영화 자막은 스크린에 나오기 때문에, 영상미를 방해하지 않고 그 아름다움을 부각시키기 위해, 자막의 길이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고 믿습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면서 번역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영화를 보는 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지식과 관심도 변해왔다고 생각하는데, 현장에서 일하면서 그런 부분을 느끼신 적이 있나요.

요즘 영화에는 반드시 휴대폰의 문자 화면이 나오기 때문에, 이를 자막에 넣을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또, 인터넷의 보급으로 누구든지 간단하게 일본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어, 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지식도 훨씬 많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츄데레(ツンデレ: 때로는 쌀쌀하게 때로는 지나치게 곱살맞게 대하는 태도, 또는 그런 사람을 이르는 말)’ 같은 일본의 신조어가 한국의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런 변화는 번역할 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강민하 씨처럼 한국과 일본의 가교로서 활약하기를 꿈꾸는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양국의 가교가 되기 위해서는 언어가 가장 중요하지만, 그 나라에서 태어나 수십 년 동안,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면서 일상적으로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늘 공부하고, 언어 실력을 향상시키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말로 무언가를 전한다는 것은 문화와 사람의 감정을 전하는 것으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자신의 말로 무언가를 전할 때는 그 말에 책임을 지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나아가, 일본어가 가능한 젊은 세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일본어를 사용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영화나 책 번역뿐이다’라고 단정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일본어로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또, 하고 싶은 일이 명확한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어떤 일에 조금이라도 관여하면서, 그 세계 주변에서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기회가 생기거나, 길이 보일 것입니다.

に出てきた時には、観客がこの言葉を覚えていなくて映画に集中できなくなることを避けるため、言葉に説明を加えて「口で囃んだ酒」という字幕を入れました。また、映画字幕はスクリーンで映し出されるものなので、映像美を邪魔せず、その美しさを浮き彫りにするためには、字幕の長さが短ければ短いほど良いと信じています。その点も念頭に置いて翻訳作業をしています。

日本映画を見る韓国人の日本に対する知識や関心も変わってきたと思いますが、現場で働く上でそのような部分を感じたことはありますか。

最近の映画では必ず携帯電話のメール画面が出てくるので、その部分に字幕を入れる必要性が出てきました。また、インターネットの普及によって誰でも簡単に日本の文化に接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ったため、韓国人の日本に対する知識もさらに増えてきたと思います。「ツンデレ」といった日本の新造語が韓国の若者の中でも一般的に使われていますが、こうした変化は翻訳の際にも影響を及ぼしています。

カン・ミンハさんのように日韓の架け橋として活躍することを夢見る方々に伝えたいメッセージがあれば。

日韓の架け橋になるためには、言語が最も重要ではありませんが、その国で生まれて何十年間も様々な文化を経験し、日常的にその言語を使っている人でない以上、常に勉強を続け、言語の実力を向上させていく姿勢が必要です。言葉で何かを伝えるというのは、文化や人の感情を伝えることにも繋がるため、自分の言葉で何かを伝える際には、その言葉に責任を持つ姿勢も必要です。さらに、日本語ができる若者世代に言いたいのは、「日本語を使ってできる仕事は映画や本の翻訳だけだ」といったように決め付けないでほしいということです。それ以外にも日本語を使って様々な仕事ができると考えていれば、きっと新しいチャンスが訪れるはずです。また、やってみたいことが明確な場合には、それに関係する何らかの仕事に足や指の一本でも入れて置き、その世界の周りから仕事を始めるべきです。そこに留まっていれば、いずれはチャンスが生まれたり、道が見えてくるはず입니다。

트레플유오 Trèfle UO

행운을 상징하는 네 잎 클로버가 아닌, 행복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서 세 잎 클로버로 가게 이름을 정했다는 트레플유오의 정유원 파티셰. 지금까지 맛있는 디저트와 초콜릿을 만들기 위해 만난 사람과 그 과정을 전하는 그녀의 눈에는 한 동안 감동의 눈물이 비치기도 했다.

‘Trèfle UO’라는 이름은 무슨 뜻인가요.

‘Trèfle’은 프랑스어로 클로버라는 의미이며, ‘UO’는 제 이름 유원에서 따왔습니다.

케이크와 초콜릿 만들기를 배우게 된 계기가 있다면.

남편과 저는 토목을 전공한 시빌 엔지니어(Civil Engineer)였는데, 블로그에서 ‘나카무라 아카데미’에 관한 글을 보고는 배우고 싶은 마음이 들어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취미 생활로 시작했지만, 꿈을 담아 열심히 배우는 친구들과 체계적인 아카데미의 분위기 덕분에 더 열심히 공부한 것 같습니다. 당시는 케이크는 물론 초콜릿을 만드는 법도 배우고 싶었지만, 너무 어려운 분야라 엄두도 못 내다가, 졸업 후에 ‘피아프(Piaf)’라는 국내 초콜릿 전문점과 ‘르노트르’에서 초콜릿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초콜릿은 매우 매력적인 디저트로, 지금은 잠시 숨 고르기를 하고 있지만, 가게에 초콜릿 전용 판매 공간도 따로 두고 있습니다. 고베의 외판 시골마을에서 ‘es koyama’라는 초콜릿 가게 등을 운영하는 고야마라는 분이 계신데, 자신만의 철학과 장인 정신으로 케이크와 초콜릿을 만드는 모습과 가게를 경영하는 방법 등에서 많은 영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도 경력을 더 쌓아서 그 분처럼 가게를 운영하고 싶습니다.

일본 케이크 이외에, 다른 나라의 케이크 만들기도 배우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나카무라 아카데미’에서 일본의 제과 전문코스를 졸업한 후, 프랑스 제과 제빵 전문학교인 ‘르노트르’에서 프랑스 제과도 배웠습니다. 일본 제과와 프랑스 제과를 모두 배운 덕분에 양쪽의 장점을 살린 케이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일본 제과는 프랑스 제과를 기본으로 하지만, 엄연하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제과는 단 하나의 과정과 공정에도 의미를 담아 세심하게 만들지만, 프랑스는 비교적 거칠고 투박한 면이 있습니다. 맛에서는 프랑스 제과보다 일본 제과가 훨씬 덜 답니다. 일본 제과는 시트 종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프랑스는 무스 종류가 많습니다. 또, 과거에는 일본 제과가 프랑스 제과를 따라했지만, 요즘에는 반대로 프랑스 제과가 일본 재료를 고급스럽게 여기며 유자와 말차 등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



니다. 이처럼 양국의 제과는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케이크를 만들거나 가게를 운영하며 중점을 두는 부분과 어려운 점이 있다면.

신상품 개발과 손님에 대한 서비스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가게의 주 고객은 이 지역에 거주하는 어머님들이신데, 주로 티라미수나 슈 종류 같은 일반적인 케이크를 선호하십니다. 또, 비교적 달지 않은 일본 케이크를 만들고 있지만, 간혹 더 달지 않은 케이크를 찾는 분도 있어서, 이런 점 등에 주의하며 케이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반면, 젊은 손님들은 SNS를 보고 찾는 분이 많기 때문에, 주로 사진이 잘 나올 것 같은 시각적으로 예쁜 케이크를 선호하십니다.

한국인과 일본인이 느끼는 맛의 차이를 케이크 만들 때 어떻게 반영하고 있나요.

일본 분들도 간혹 저희 가게에 오시는데, 그 때마다 가게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 즉 한국 손님들이 좋아하는 메뉴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면, 한국 손님들과 마찬가지로

지로 맛있게 드시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미각에 큰 차이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독자들, 그리고 제빵 제과를 배우고자 하는 분들에게 드리는 조언이 있다면.

저는 일본이라는 나라를 제과를 배우고 나서 처음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단순히 여행을 위해 방문한 경우와 비교해 본다면, 더욱 관심이 갖고 제빵 제과를 통해 문화를 더욱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재료는 일본의 어느 지역에서 나온 것이다’, ‘이 케이크는 일본의 어느 지역이 유명하다’는 제빵 제과 관련 사실부터, 일본 지역과 나아가서는 문화에 대해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터득한 지식은 저 자신에게 의미도 있으면서 오래도록 기억됩니다. 즉,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통해 그 나라 문화를 접하게 된다면 더욱 접근하기 쉬운 것입니다.

제빵 제과를 배우고 싶은 분들에게는 처음 배우기 시작할 때는 힘들지만, 끝이 없을 정도로 공부할 것이 많아, 재미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또한 가게를 운영하면서도 모르는 점이 많기 때문에, 스태프들에게 물어보기도 하면서 항상 배우고 있습니다. 또, 꾸준히 많이 만들어 봐야 맛있는 것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기초를 탄탄하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앞으로의 목표는?

앞으로도 이 일을 꾸준히 재미있게 해 나가고 싶습니다. 가게 이름 중 ‘Trefle’은 행운을 상징하는 네 잎 클로버가 아닌 행복해지고 싶다는 의미에서 세 잎 클로버로 정했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면서 저 자신도 행복해지고 사람들에게 행복한 맛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세계적인 절경의 히미시

도야마만 너머로 보이는 다테야마 연봉

히미시 소개

도야마현(富山県) 히미시(氷見市)는 일본 열도 혼슈(本州)의 중앙 북부에서 노토(能登) 반도로 이어지는 부분의 동쪽에 위치하며, 동으로 도야마만(富山湾)과 면해 있고, 남서북 세 방향으로는 산줄기가 뻗어 있다. 인구는 약 5만명으로 농업과 어업이 발달한 도시다. 호쿠리쿠(北陸) 지방이지만, 연안을 흐르는 난류의 영향으로 비교적 온난한 기후다. 한국에서는 인천국제공항부터 도야마시의 도야마 기토키

토공항까지 직항편으로 약 2시간이다. 도쿄역에서 히미시까지는 호쿠리쿠 신칸센(北陸 新幹線)과 재래선(在来線)이나 버스를 이용해서 약 3시간, 인근 이시카와현(石川県) 가나자와시(金沢市)에서는 재래선을 이용해서 1시간 남짓이면 올 수 있다.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절경이 펼쳐진다

히미 해안에서 보이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灣) 클럽'에도 가입된 도야마만 위에 우뚝 솟아 있는 다테야마 연봉(立山連峰)은 시의 상징이다. 이 경치를 볼 수 있는 날은 연간 50일에서 60일 정도로, 12월부터 2월 기온이 떨어진 맑은 날에 보일 확률이 높다고 한다.

이렇게 바다 너머로 3,000m급 산들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은 세계적으로도 드물어 일본 전역에서 사진 애호가들이 몰리는 인기 장소로서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있다.

해안을 따라 온천이 있는 숙소가 곳곳에 자리잡고 있어 '히미온센쿄(氷見温泉郷)'라 불리고 있다. 온천을 하면서 이런 경치를 감상할 수 있도록 노천탕을 갖춘 여관도 많다.



상공에서 촬영한 옛츠키 정치망

‘옛츄식 정치망’의 발상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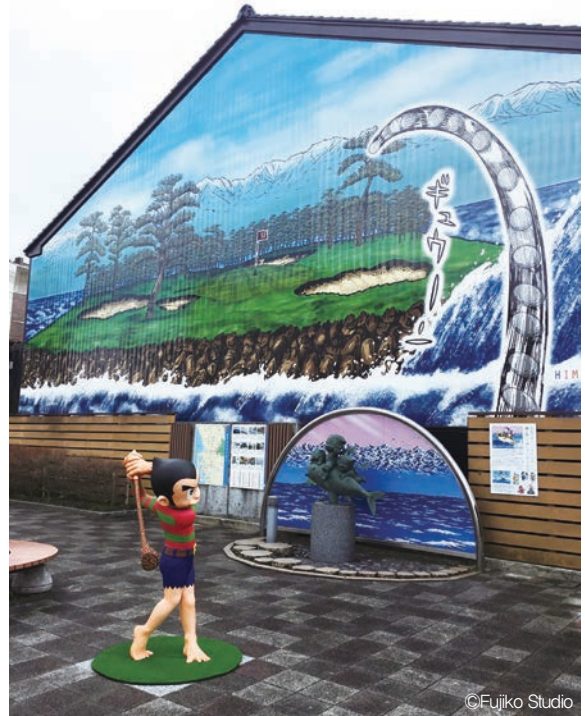
히미시는 예로부터 어업이 번창했으며, 호쿠리쿠 지방(北陸地方) 제일의 어획량을 자랑하는 ‘어업 도시’다. 히미의 생선 맛을 지켜낸 ‘옛츄식 정치망(越中式定置網)’은, 400년 이상 이어진 히미 발상의 전통적인 어법(漁法)이다.

정치망으로 잡은 물고기를 선상에서 바로 얼음물에 넣고, 피를 제거하는 이케지메(活け締め)를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최소한으로 억제되어 신선도와 품질이 최상인 상태에서 물에 올릴 수 있다. 게다가 히미항이 어장에서 가까워, 바로 어시장으로 운반할 수 있는 것도 히미 생선이 맛있는 이유다. 또 이 어법은, 물고기를 송두리째 잡지 않는 친환경적인 것이라, 매년 아프리카와 아시아 각국에서 정부 관계자와 실습생 등이 시찰, 연수를 위해 방문하는 등 세계적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해산물 대국 히미

‘천연 가두리’로 불리는 도야마만에서는 사계절 내내 500여 종의 물고기가 잡힌다. 일본에는 많은 어장이 있지만, 특히 히미 앞바다에서 잡히는 물고기는 ‘히미’의 이름을 딴 브랜드 수산물로 유명하다.

봄철 ‘히미 정어리’와 초여름의 ‘참다랭이’, 그리고 가장 유명한 것은 상표 등록까지 되어있는 도야마만의 겨울 왕자인 ‘히미칸부리(ひみ寒ぶり, 히미에서 겨울철에 잡히는 방어)’로서, 일본 전역에서 미식가가 히미를 방문한다. 이 계절에는 시내의 숙박 시설이나 음식점 등 40여 곳에서 방어의 매력을 알리는 ‘히미부리 페어(ひみぶりフェア)’가 개최된다. 방어 머리부터 꼬리까지를 사용한 다양한 요리를



프로 골퍼 사루 포켓 파크

선보이는데 ‘방어 회’나 ‘방어 샤브’, 찜 요리인 ‘방어 무썸’ 등 그 가게만의 색다른 방어 요리를 즐길 수 있다.

산해진미를 즐기는 ‘히미잔마이 고젠’

히미가 자랑하는 식재료는 생선뿐 아니다. ‘히미마이(氷見米)’와 ‘히미규(氷見牛)’, ‘히미노우동(氷見のうどん)’ 같은 특산물도 있다. 시내의 숙박 시설과 식당에서는 히미의 산해진미를 한 상에 차려내는 ‘히미잔마이 고젠(氷見三昧御



히미오키 크루징



정치망 어장의 모습



히미잔마이 고젠



히미잔마이 고젠



방어 사브사브

膳) 캠페인을 1년 내내 실시하고 있다. 가게마다 개성 있는 메뉴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계절의 제철 식재료를 듬뿍 사용한 요리를 즐길 수 있다.

히미시의 후지코 후지오^㉔ 만화 월드

‘닌자 핫토리군’과 ‘괴물군’ 등 인기 만화작가로서, 일본을 대표하는 만화가 후지코 후지오^㉔(藤子不二雄^㉔) 선생은 히미시 출신이다.

중심 시가지에서는 후지코^㉔ 선생의 입체 캐릭터 조형물을 곳곳에서 만날 수 있으며, 선생의 원화 작품 등을 전시하는 ‘히미시 시오카제 갤러리(氷見市潮風ギャラリー, 후지코 후지오^㉔ 아트컬렉션)’와 캐릭터들이 음악과 물 쇼를 펼치는 ‘닌자 핫토리군 가라쿠리 시계’ 등 후지코^㉔ 월드를 만끽할 수 있다.



그림이 그려진 어묵

올 3월에 완성한 ‘프로 골퍼 사루 포켓 파크’에서는, 대형 벽면에 그려진 다테야마 연봉을 향해 슈퍼 샷을 날리는 등 신대의 ‘프로 골퍼 사루(원숭이)’와 함께 기념 촬영을 즐길 수 있다. 인근에 위치한 700년 가까운 역사가 있는 고찰 고젠지(光禪寺)는 선생의 생가로서, 산문을 들어서면 와라 우세일즈맨의 주인공인 모구로후쿠조(喪黒福造) 등의 석상이 맞이해 준다.

또, JR 히미선에서는 ‘닌자 핫토리군’이 그려진 열차를 운영하고 있어, 일본 전역에서 철도 팬이 방문하고 있다.

보재 놀재 히미를 체험하자

히미항 어시장에서 세리시의 모습과 정치망 조업을 선상에서 견학할 수 있다. 또, 인기 있는 히미오키(氷見沖) 크루징을 비롯해서, 건어물 만들기과 어묵에 그림 그리기, 후릿 그물 등 다양한 체험이 가득하다. 약 300년 전에 가가 번(加賀藩) 번주의 조정사가 만든 회유식 정원 ‘고큐지노 차테이(光久寺の茶庭)’에서는 말차 체험도 할 수 있다.

꼭 히미를 방문해서 아름다운 경치와 신선한 어패류, 후지코^㉔ 월드 등을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건강이나 체험을 희망하시는 분은 사전에 메일로 문의 바람.

히미시 관광교류 · 여성응원과 kankoukouryu@city.himi.lg.jp

일반사단법인 히미시관광협회 hello@himikan.jp

(집필: 히미시, 협력: CLAIR, Seoul)



J-MUSIC NOTES 래드윙프스 RADWIMPS



Vocal / Guitar / Piano 노다 요지로 (野田洋次郎/Yojiro Noda)
Guitar 구와하라 아키라 (桑原彰/Akira Kuwahara)
Bass 다케다 유스케 (武田祐介/Yusuke Takeda)
Drum 아마구치 사토시 (山口智史) 지병으로 활동 중지 중)

래드윙프스는 독자적인 세계관의 가사, 테크니컬하면서 풍부한 대중성을 지닌, 장르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분방한 사운드로 압도적인 자질을 얻고 있는 4인조 록밴드다.

2003년 7월 인디즈 1st 앨범 'RADWIMPS'를 발매. 2005년 11월 싱글 '25目の染色体(25번째 염색체)'로 메이저 데뷔했다. 2013년 7번째 오리지널 앨범 'xとoと罪と(X와 O와 죄와)'를 발매하고, 2014년 2월부터 4회 해외공연을 포함해서, 밴드 최대 규모의 투어를 개최, 총22만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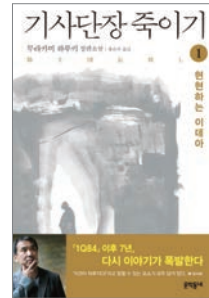
메이저 데뷔 10주년을 맞이한 2015년 첫 유럽 투어와 두 번째 아시아 투어를 진행했으며, 귀국 후 아티스트 11팀과 첫 합동 라이브 투어도 개최했다.

2016년 애니메이션 영화 '너의 이름은.'의 음악 전반을 담당해 밴드 사운드뿐만 아니라 배경음악 제작에도 다채로운 작곡 능력을 발휘, 8월 발매한 앨범 '君の名は.(너의 이름은.)'와 함께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같은 해 11월 오리지널 앨범 '人間開花(인간개화)'를 발매하고, 2017년 2월부터 12곳에서 21차례 공연하는 등 일본 전국 아레나 투어 'Human Bloom Tour 2017'를 개최하여 21만명의 청중을 열광시켰다. 또한 2017년 6월부터 3번째 아시아 투어를 진행하여, 6월 9~10일 아틀란 나한 공연을 펼쳤으며, 7월 '2017 자산 밸리룩 뮤직앤드아트 페스티벌'에도 참가했다.

공식 웹사이트 <http://radwimps.jp/>



일본 서적 소개 기사단장 죽이기



무라카미 하루키 지음 | 홍은주 옮김 | 문학동네 출간

'1Q84' 이후 7년, 무라카미 하루키의 모든 것이 여기에 있다!

현실과 관념의 경계를 꿰뚫는 이야기의 힘, 대범한 상상력으로 무장한 무라카미 하루키 월드의 집대성이다. '태엽 감는 새', '1Q84' 등 기존의 본격 장편소설 세계관을 잇는, 현실과 비현실이 절묘하게 융합된 무라카미 하루키의 장편소설 '기사단장 죽이기'.

30대 중반의 초상화가 '나'는 아내에게서 갑작스러운 이혼 통보를 받고 집을 나와서 친구의 아버지이자 저명한 일본화가 아마다 도모히코가 살던 산속 아틀리에에서 지내게 된다. 그리고 어느 날 천장 위에 숨겨져 있던 그의 미발표작 '기사단장 죽이기'를 발견한다. 모차르트 오페라 '돈 조반니'의 등장 인물을 일본 아스카 시대로 옮겨놓은 듯한 그 그림을 가지고 내려온 뒤로, '나'의 주위에서 기이한 일들이 잇달아 일어난다.

7월 일본소설 베스트셀러

순위	도서명	저자명	출판사명
1	기사단장 죽이기	무라카미 하루키	문학동네
2	위험한 비너스	히가시노 게이고	현대문학
3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히가시노 게이고	현대문학
4	가면산장 살인사건	히가시노 게이고	재인
5	바다가 보이는 이발소	오기와라 히로시	알에이치코리아
6	기린의 날개	히가시노 게이고	재인
7	상냥한 저승사자를 기르는 법	치넨 미키토	북폴라자
8	해바라기가 피지 않는 여름	미치오 슈스케	들녘
9	우리 집 문제	오쿠다 히데오	재인
10	Re:제로부터 시작하는 이세계 생활	나카쓰키 타케미	영상출판미디어
11	너의 이름은.	신카이 마코토	대원씨아이
12	인간 실격	다자이 오사무	민음사
13	이행	모리미 도미히코	예담
14	너의 체장을 먹고 싶어	스미노 요루	소미미디어
15	마티네의 끝에서	히라노 게이치로	아르테
16	라플라스의 마녀	히가시노 게이고	현대문학
17	편의점 인간	무라타 사야카	살림
18	상실의 시대(원제: 노르웨이의 숲)	무라카미 하루키	문학사상사
19	노르웨이의 숲	무라카미 하루키	민음사
20	고백	미나토 가나에	비채

(제공: 교보문고)

제10회 전국학생일본어연극발표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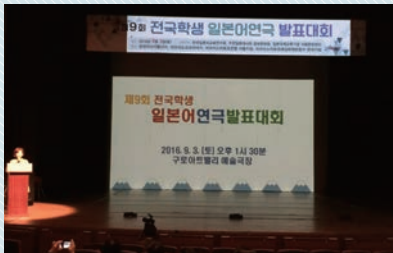
제2외국어로 일본어를 공부하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본어연극대회가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주최로 진행된다. 5인이 한 팀이 되어 일본어로 창작 콩트, 촌극, 패러디 등의 연기를 선보이며, 일본어 능력과 연기력, 퍼포먼스 등을 겨루게 된다. 우수한 성적을 거둔 팀에게는 일본 외무성이 실시하는 일본 방문 프로그램(JENESYS 2017) 참가 기회(고등부)와 일본연수 참가 기회(중등부)를 부여할 예정이다. 관람 무료.

일시 9월 2일(토) 13:00~19:00

장소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주최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한국일본어교육연구회,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문의 한국일본어교육연구회 <http://www.kojata.or.kr>



작년 대회 모습

제13회 한일교류 말하기대회

올해로 13회를 맞이하는 '한일교류 말하기대회' 본선이 9월 9일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서 개최된다. 한국인과 일본인이 상대국의 언어로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교류를 통해 서로의 우정을 쌓아가는 행사로, 교류에 관심 있는 분들은 말하기 3분 내외(약 1,000자 내외)의 스피치 원고(한국어, 일본어 2개국어)를 작성해서 8월 14일(월)까지 응모하면 된다. 지원자 중 예선 심사를 통과한 본선 진출자 약 20명에게 각종 상장 및 부상, 기념품을 증정한다. 무료 관람.

본선 9월 9일(토) 14:00~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3층 뉴센추리홀

응모자격 참가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지만, 일본어 모국어 화자는 한국어로, 한국어 모국어 화자는 일본어로 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응모기간 8월 14일(월)까지. ※메일로만 접수 가능. 시간 엄수.

주제 주제는 자유지만 정치, 사상, 종교적인 것은 제외.

예) 자국(일본, 한국) 문화 소개하기, 상대국(일본, 한국)의 문화에서 배울 점 등

분량 말하기 3분 내외 (약 1,000자 내외)

응모 방법 아래 홈페이지에서 응모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필요사항을 기재 후,

이메일(jetaakorea@gmail.com)로 접수. (원칙적으로 word파일 송부)

원고는 반드시 한국어와 일본어 2개국어로 각각 작성할 것.

- JETAA 대한민국지부 공식 커뮤니티 (<http://cafe.daum.net/jetprogramme>)
-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http://www.kr.emb-japan.go.jp/event/speech_contest_2017.html)
- 일본 자치체국제화협회 서울사무소(CLAIR, Seoul) (<http://www.clair.or.kr/>)

*접수한 원고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선 진출이 확정된 원고는 안내문 제작 및 출판 등에 사용될 수 있다.

본선 진출자 발표 2017년 8월 25일 (금) 예정

문의 JETAA 대한민국지부 jetaakorea@gmail.com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02-765-3011(내선 140)



제6회 한국대학생일본어디베이트 대회

한국대학생일본어디베이트대회 서울대회(영남지역 대학은 부산대회에 출전)가 9월 9일(토) 개최된다. 올해는 '한국은 119 구급차를 유료화해야 한다'는 논제로 진행되며, 우수한 성적을 거둔 팀은 9월 16일(토) 전국대회에 출전하게 된다. 입상자는 일본 외무성이 실시하는 일본 방문 프로그램(JENESYS 2017)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진다.

일시 및 장소

서울대회 : 9월 9일(토), 가톨릭대학교 성심(부천) 캠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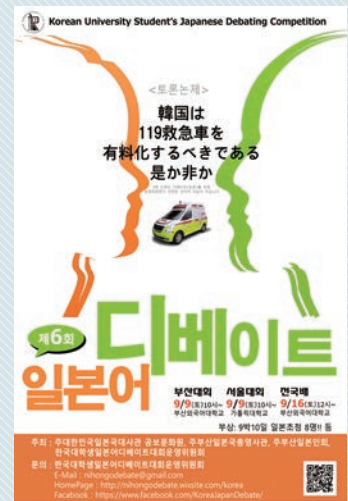
부산대회 : 9월 9일(토), 부산외국어대학교

전국대회 : 9월 16일(토), 부산외국어대학교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주부산일본총영사관, 부산일본인회,
한국대학생일본어디베이트 대회 운영위원회

후원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서울재팬클럽(SJC), 가톨릭대학교 CORE 사업단,
한국일본어학회, 시사일본어사 등

문의 한국대학생일본어디베이트 대회 운영위원회(서울) debate.seoul@gmail.com



8월의 일본영화상영회 여름방학특선

여름방학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관람할 수 있는 재미와 감동의 실사 영화와 애니메이션을 상영한다.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작품, 우정을 테마로 한 작품 그리고 휴먼드라마까지 다양한 소재의 가족영화 10편을 소개한다.

시간 14:30(14:00부터 입장)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3층 뉴센추리홀

8월 17일(목)	8월 21일(월)	8월 22일(화)	8월 23일(수)	8월 24일(목)
핑퐁 ピンポン	사토리레 サトラレ	파코와 마법 동화책 パコと魔法の絵本	괜찮아 3반 だいじょうぶ3組	모모와 다락방의 수상한 요괴들 ももへの手紙
8월 25일(금)	8월 28일(일)	8월 29일(화)	8월 30일(수)	8월 31일(목)
벼랑위의 포뇨 崖の上のポニョ	섬머워즈 サマーウォーズ	코쿠리코 언덕에서 コクリコ坂から	유어 프렌즈 きみの友だち	히마와리와 나의 7일 ひまわりと子犬の7日間

히라가나 가타카나 디자인 콘테스트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과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히라가나 가타카나 디자인 콘테스트' 응모가 10월 31일까지 진행된다.

한국의 중고생 및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일본어의 문자(히라가나, 가타카나)를 모티브로 창작한 디자인 콘테스트로서,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

자세한 내용은 가나콘 전용 홈페이지 www.jfkanacon.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응모기간 10월 31일(화)까지

공모주제 히라가나 가타카나 문자를 활용한 디자인

주최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문의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02-3970-2827, jf-teacher@jpf.or.kr



제38회 한일양국아동작품 교류전

매년, 여름 방학 기간 중에 개최되는 한일여성친선협회 주최의 '한일 양국 아동 작품 교류전'이 8월 18일까지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서 개최된다. 사전에 작품모집을 통해 선발된 양국의 유치원 아동과 초등학교생의 그림, 작문이 전시되며, 전시 기간 중에 전시 현장에서 '그림 그리기 대회'를 실시해 전시 마지막 날에 시상식도 진행된다. 입장 무료.

기간 8월 11일(금)~18일(금)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2층 실크갤러리

주최 사단법인 한일여성친선협회

후원 주한일본대사관

문의 사단법인 한일여성친선협회 02-2273-7645

2017년도 일본유학박람회

일본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이 적절한 진학을 선택하고 결실 있는 유학을 할 수 있도록, 일본의 유학 제도 및 고등 교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본유학박람회가 주한일본대사관 후원으로 열린다. 일본의 대학, 전문대학, 교육 기관 등 약 100개 기관이 참가하며, 고등학생, 대학생 등 일본 유학 희망자 및 진학 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참가 기관의 부스에서 자료를 전시하고 배포하며, 설명 및 체험담 발표 등의 세미나를 실시한다. 학교 관계자와의 개별 상담도 가능하다. 입장 무료.

일시 및 장소 부산 : 9월 9일(토) 10:00~16:00 BEXCO 제 2전시장

서울 : 9월 10일(일) 10:00~16:00 SETEC 제 3전시실

주최 독립행정법인 일본학생지원기구

공동주최 전국전수학교 각종학교총연합회, 공익사단법인 도쿄도전수학교 각종학교협회, 사단법인 한일협회

후원 주한일본대사관

문의 독립행정법인 일본학생지원기구 한국사무소 02-765-0141 <http://www.jasso.or.kr>



한국의 신진일본연구자 방일지원 프로그램

한국에서 차세대 연구를 이끌어 갈 신진 일본연구자의 연구활동을 지원하여 지속적인 일본연구자 육성에 도움이 되기 위해 '한국의 신진일본연구자 방일지원프로그램(韓国における若手日本研究者訪日グラント)' 접수가 9월 4일까지 진행된다.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가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은 정규직에 있지 않은 한국의 신진 일본연구자가 질 높은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회 발표나 논문집필 등을 목적으로 한 조사 또는 자료수집을 위한 단기방일조사를 지원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분들은 관련 홈페이지(<http://www.jpfr.or.kr>)를 통해 자세한 신청조건 등을 확인 후, 제출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제출서류 신청서(반드시 일본어로 작성할 것), 박사학위증명서(사본)

접수마감 9월 4일(월)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당일18시까지), 이후 접수 불가.

채용발표 10월말 ※채용자에 한해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후, <채용통지서> 발송.

채용인원 7명(인원수는 변동 가능)

지원금액 1인 최대 300만원

방일시기 2018년도 3월 말까지 방일조사를 시작할 것

문의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일본어일본연구부(학술)담당

TEL 02-397-2820(대표), 397-2826(담당), egko@jpfr.or.kr

방학에 일본 가고, 내 SNS에 매력 발산!

Cool Japan 리포터

2017
Cool Japan

**11월 모집
예정**

고등학생·대학생 대상

9박 10일간의 특별한 일본 방문프로그램

일본의 민낯을 경험할 수 있는 홈스테이

일본 학생들과의 교류 및 학교 방문

자세한 모집일정은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 또는



일본문화원

페이스북에서 확인하세요!

일본문화원 리포터 4기

(※ 2018년 상반기 모집 예정)

- 만 19세~40세 미만 한국인 대상
- 6박 7일간의 일본 현지 취재 기회
- 7개월간의 민간외교관 활동

자세한 모집일정은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 또는



일본문화원

페이스북에서 확인하세요!





가깝고도 먼 이웃나라 일본, 여행만으로는 알기 힘든
일본 속으로 들어가 겪은 신들린듯 좌충우돌 유학 여행기

오~키니!! 최현정의 유학(遊學)보고서

오랑우탄이 하늘을 산책하고

오우오우

오랑우탄의 고향 인도네시아의 정글 숲을 그대로 재현했구나!

아하하 **와아~**

펭귄이 유유자적 물속을 자유롭게 누비며 하늘을 난다.

나... 난다 펭귄! 게다가 엄청 빨리~ 역시 너 새였구나!

와아~

바닷속에 들어와 있는 듯 착각을 일으키는 펭귄관의 수중터널.

송송

육상과 수중을 자유롭게 오가는 바다물범을 360도 입체로 볼 수 있고

마치 바다물범이 우리를 구경하고 있는것 같네~

히헷~

풀장에 한껏 몸을 던지는 북극곰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퐁당~

북극곰 방사장의 물개 캥캥 강추~

'자유로이 다니고 헤엄치고 나는 동물 본래의 모습을 보이자!'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의 여느 동물원과 다른 동물 본래의 모습을 살린 '행동전시'.

처음봐~ 물동둥이의 헤엄치는 모습!

넵넵르르르~

와아~

와! 발바닥 좀 봐~ 하얀 북극곰 사실 속살은 까맣구나!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북극곰의 모습을 바로 눈 앞에서~!

물동둥이 = 하마

행동전시의 대표는 단연 겨울철 한정인 '펭귄산책'. 원래는 펭귄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원내를 걷기 시작한 것이 지금은 겨울철 모두가 기다리는 매일의 행사가 되었다고 한다.

***인기 이벤트!**

와아~ **아장아장**

두뚱두뚱~

보드득 보드득~

호기심 왕성한 펭귄이 산책길 중에 살며시 다가오기도 한다고~

행동전시와 함께 짹째 나무위를 다니는 거미원숭이와 움직임이 느린 카피바라를 함께 할사함으로 서로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혼합전시'.

옴마나~ **뭘봐유?** **먹감는 처자들** **참봐유?**

요 아이는 **쿨쿨~** **눈잠중**

일본 최북단 홋카이도 아사히카와에 있는 아사히야마(旭山) 동물원의 이야기이다. 한때 폐원의 위기에 처하다가 지금은 한겨울에도 전국에서 몰려드는 경이로운 동물원으로, 그 방문객수가 연간 최고 300만명(2006년). 아사히야마 동물원의 또 다른 이름은 '기적의 동물원'. 동물원의 테마는 '생명', 발견과 감동이 있는 '원더랜드'임에 틀림없다.

아직 안 가 본 사람은 있어도 한번만 가 본 사람은 없을 정도라니~